



###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삼국유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일연의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의 기록

#### 역사를 보는 눈

우리는 직립이라는 사건을 통해 역사적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들은 언어의 발견을 통해 문화를 창안했고, 도구의 발명으로 문명을 탄생시켰다. 인간에 의해 변화 발전되어 온 문명과 문화의 자취와 기록은 역사사 되었다. 문명과 문화의 흔적인 기록과 유물과 유적 등은 사료(史料)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온축된 사료들은 역사가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역사로 자리매김 된다. 역사 해석은 곧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역사가는 남아있는 문헌의 총체인 사료들을 통해 해독작업을 시작한다. 이 해독작업을 우리는 ‘역사 해석’이라고 하고, 역사 해석을 지배하는 사가의 인식 체계 혹은 관점을 ‘사관(史觀)’이라고 한다.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즉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사관의 문제는 해당 철학 또는 해당 역사의 세계관이 된다. 붓다는 “나는 세간과 더불어 싸우지 않는데 세간이 나와 더불어 싸운다”고 말하면서 인간 중심의 철학사관을 제시했다. 나아가 붓다는 “나는 한결같이 이것을 설하니 이것은 말하지 않을 것은 말하지 않고 말할 것은 말한다”고 했다. 그런 뒤에 우리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할 진정한 길로서 사성제(四聖諦)를 제시했다.

사관은 역사를 보는 눈이다. 즉 사관은 하나의 팩트(사실)가 머금고 있는 시공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다시 말해서 사관은 역사기술의 주체인 인간(역사)과 그 인간이 직면하는 세계(사실, 사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동서 고금의 사가들은 저마다의 관점 위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해 왔다. 역사해석을 지배하는 사가들의 인식체계인 사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과거 한 시점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넘어 역사가의 현재의 관점 혹은 견해로서 지속적으로 해석 또는 평가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관은 오늘 여기를 사는 역사적 주제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역시 이러한 사관에 입각해 기술한 저술이다. 거기에는 일연의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중국의 고승전을 참고했으며서도 체재나 형식 그리고 내용면에서 종래의 승전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전시대 각후의 《해동고승전》과도 변별되고 있다. 대다수 고승전의 관자들이 같은 승려의 신분이고 그 형식이 고승전의 형태

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명, 편명의 성격, 편명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 등에서 일연은 독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편명의 명명과 조목명에 투영된 언어 감각과 시인적 감수성, 찬사와 민요 및 향가 등 작품의 배치와 수록, 138조목의 분류방식, 서두의 「왕력」편, 비평적 시각에 근거한 명료한 할주(割註) 등에서 우리는 이 사서를 편찬하고자 했던 일연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다.

#### 불교적 세계관

불교의 우주관은 수미산 중심과 연화장 중심으로 해명한다. 이 두 세계관은 모두 이 세계의 최저에 풍륜(風輪)이 있다고 설

역사에 대한 견해 · 입장이 사관  
사료의 해독작업이 역사의 해석  
사관 견해, 곧 역사의 세계관 패

모두 일심진여(一心眞如)의 이체(理體)로부터 일어난다는 진여(眞如)연기설로 설명한다. 화엄에서는 법계(현상계)의 사물이 천차만별하지만 상호교섭(相即)과 상호투영(相入)의 원리에 의해 무아자재하게 연기하므로 피차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법계(法界)연기설로 연표한다.

‘서로 의존하여 함께 존재한다’는 ‘연기’의 개념에는 연생(緣生)과 연멸(緣滅)이 동거하고 있다. ‘의해서 생겨난다[緣生]’는 것은 무명에서 노사로 나아가는 고통 생성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반면 ‘의해서 사라진다[緣滅]’는 것은 ‘노사’에서 ‘무명’을 거쳐 ‘깨침’으로 나아가는 고통 소멸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무명의 업풍으로

《삼국유사》 불교세계관으로 쓰여  
일반사를 불교사로 재구성해 저술  
일연은 곳곳서 보살적인간상 담아

명한다. 이 풍륜은 중생들의 공동업이 만들어낸 무명(無明) 업풍(業風)의 띠이다. 그 위에 수륜(水輪)과 금륜(金輪)이 있고 금륜의 한 북반에 수미산이 있고 그 주위에 7산(山)과 8해(海)가 있으며 맨 바깥의 철위산 밖에는 4대륙[洲]이 떠 있다. 붓다의 가르침은 업설(業說)에 기초한 연기적 세계관으로 요약된다. 업설이란 중생과 세계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만상은 모두 중생들 각자의 업력(業力)에 이루어진다는 담론이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뜻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동작과 말로 발표하여 업을 짓게 되고 그 업력을 심종의식으로 잠재세력화시킨다. 그리고 이들 세력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결과를 불러온다. 우리는 전생에서 자기가 뿌린 업력의 종자에 의해 지금의 과보를 받는다. 즉 죽음을(死有), 죽음이후(中有), 태어남(生有), 죽어감(本有)의 차례로 업을 짓고, 업에 의하여 윤회 전생하며, 이 업력에 의해 국토도 물질의 원소들을 모으고 흠고 하여 세계를 이룩한다.

깨침[悟]의 세계에서와 달리 미혹[迷]의 세계 속에 사는 중생에게는 여섯 갈래로 나아가는[六趣] 차별이 있다. 모두 각각의 주체인 중생과 중생이 의지하여 사는 국토, 즉 자신의 업력에 의해 몸과 세계 사이를 끊임없이 윤회 전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업설에 기초한 업감(業感)연기론은 계속해서 다른 형식으로 변주되어 간다. 유식에서는 우주 삼라만상이 뜻밖 각자의 아뢰아식으로 상속되어 그 아뢰아식이 우주만상을 변형시킨다는(아)뢰아(阿)賴耶(阿)연기설로 해명한다. 여래장에서는 우주 만상이

부처 연생한(成住, 生) 우주와 우리는 ‘괴공(壞空)’과 ‘노사’의 연멸로부터 본디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나의 역사는 나의 업의 흔적과 자취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업의 흔적과 자취의 연기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개인의 업과 공동의 업의 연기로 인해 세계와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해서 불교의 업설은 연기설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나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무수한 인연들의 도움과 협동이 전제되었다. 해서 연기를 부정하는 브라흐만과 야드만과 같은 어떠한 고정 불변하는 존재로서 나의 자기 동일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무상(無常)과 무아(無我)고 고(苦)인 나 역시 실체가 없는 공성(空性)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삼국유사》를 찬술한 일연은 이러한 불교적 세계관에 깊이 투영된 인물이다. 그는 출가자로서 종래의 일반사를 불교의 우주관에 입각해 오늘의 불교사로 재구성했다. 그는 전통적 하느님인 ‘환인(桓因)’을 ‘제석(帝釋)’으로 비정했다. 이것은 이 땅의 역사를 불교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새롭게 기술한 것이다. 그는 안한(安舍)과 자장(慈藏) 이래 비롯된 ‘괴거불연국토설’을 이어 이 땅을 과거부터 부처와 인연이 있던 나라로 설정하고 있다. 불연국토설에 입각한 괴거불국토사상은 신라의 왕통은 불타의 종성인 찰리종이고, 신라 고도 경주 황룡사에 남아있는 ‘가섭불연좌상’ 자리는 전불(前佛)시대에 가섭불(迦葉佛)이 앉았던 터이며, 황룡사 장육상의 조성은 불국 유언설



인각사에 있는 보조국사 정조지탑. 일연 스님의 부도로 보물 제428호로 지정돼 있다.

(有緣說)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 불교적 인간상의 제시

불교는 연기성(緣起性)과 무자성성(無自性性)과 공성(空性)의 제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비행(慈悲行)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불교는 아라한상과 보살상을 통해 붓다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아라한은 대승불교 이전의 불교적 인간상이다. 그는 자기의 깨침과 구원을 힘쓸 뿐 타인의 깨침과 구원은 도외시한다. 반면 보살은 자신의 깨침과 구원은 괄호치고 타인의 깨침과 구원을 앞세운다. 그런 뒤에 그는 자각을 위한 노력과 구원을 위한 노력을 원만히 완수한다. 그리하여 그는 바라밀적 삶의 방식으로 많은 이들의 고통을 뿌리 뽑아주고 [拔苦, 悲] 즐거움을 건네준다[興樂, 慈] 일연의 화두는 “중생의 세계가 줄어들지 않고[生界不滅] 부처의 세계가 늘어나지 않는다[佛界不增]”였다. 어떻게 해야 중생의 세계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부처의 세계가 늘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쩌해야 중생이 스스로 부처임을 각성하고 부처의 세계를 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일연은 평생을 출가 수행자로 살았다. 출가자는 집이 있는 곳[信家]에서 집이 없는 곳[非家]을 향해 집을 벗어나는[出家] 사람이다. 일연은 몸의 출가만이 아니라 마음의 출가에 철저한 수행자였다. 그의 화두는 ‘중생과 부처의 이분’을 없애기 위한 절절함이 배어 있다. 원나라의 침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고려 백성들을 보고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는 육담(崔南善)의 언급처럼 “석교홍통(釋教弘通)의 역사적 사실을 철합(鐵合)하기에 주력(主力)을 주(注)한 김부식의 독단적 과오를 정정(訂正)하고 전반적인 편파를 광구(匡救)하려”고 했다. 또 “《삼국사기》의 주관적 자고(自鑄)와 무단적(武斷的) 전폐(擅廢)에 반(反)하여 고기(古記)의 유주(遺珠)를 원형대로 수취(收綴)하여 박고(博古)와 아울러 전기(傳奇)의 자(資)를 삼으려”고 했다. 때문에 일연은 《삼국사기》에서 빠뜨린 것으로 보이는 사료를 “귀[耳]와 눈[目]과 손[手]이 미치지 못하면 문득 채록”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삼국유사》 찬술이 개인의 애국심을 넘어 대승의 보살심으로 이룩한 것임을 보여준다.


일연은 《삼국유사》의 여러 조목에서 보살적 인간상을 담아내고 있다. 그는 자장의 아상을 깨어주기 위해 있었던 문수보살의 현신 이야기를 신고[慈藏定律], 효소왕의 아만을 일깨워주기 위해 진신 석가의 화신인 승려를 등장시키고 있다[眞身受供].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모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옷가지를 다 벗어주고 거적포를 건겨울밤을 떨면서 보낸 정수대사의 보살행을 수록하고 있다[正秀師 救水女]. 뿐만 아니라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소한 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으며, 한 세계에서는 한 부처만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경설과 달리 한 세계에 두 부처의 존재를 제시하기도 한다 [南白月山 二聖 努勝夫得 桓杵林] 뿐만 아니라 여인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는 경설과 달리 여

인의 몸으로도 성불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한다[那面婢 念佛西昇]. 나아가 도가 계통의 인물로 언급되는 선도성모 조차 끝내는 산신이 되어 나라와 국토를 진호(鎮護)하고, 한 가난한 여인(智慧 비구니)의 소원을 들어 불상 조성을 성취시킴으로써 민중을 위한 제도의 길을 열어놓는다.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의 결과로 이루어졌으므로 상호의존의 속성을 지닌다. 동시에 상호의존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존재의 참모습을 통찰하게 되면 상호존중의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붓다는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여래는 법을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연설하고 개발하여 드러내 보인다”고 설했다. 그러면서 “이 연기의 바다는 참으로 깊다. 감히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머리의 앞’과 ‘가슴의 할’을 넘어 ‘온몸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연은 “중생의 세계가 늘어나지 않고 부처의 세계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평을 살았 그에게 중생과 부처의 통로는 보살적 삶 자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삼국유사》의 찬술로 표출된 것이 아니었을까? 나아가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살피며 《삼국유사》를 읽어야 하지 않을까?



고영선 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 미얀마 연방 공화국

#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대표부 승격

# 한국주재 미얀마 관광청 대표부 승격

#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의 단 하나밖에 없는 미얀마 관광청과 문화원 대표부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관광청 장관과 문화부 장관의 인정서를 받고 보니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미얀마 문화를 알리는 양국간의 교류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얀마 연방 공화국 호텔 및 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호텔 신축의 상담을 비롯하여 새로운 성지순례 코스의 개척 으로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성스러운 곳이 많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전국 각종단과 불교 단체 큰스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찰의 주지스님들의 성지순례에 따른 설명회와 각종 불교 행사 및 봉사활동, 인간방생 법회 등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설명회를 자주 가지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열락주시면 미얀마 정부를 대신하여 성실하게 설명 올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 미얀마 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대표부  
 문화원 : 02)733-5665.    관광청 : 02)733-5670    팩스 : 02)733-5671

**타 단체 및 여행사에서 한국내에서 미얀마 관광청 및 관관청 대표부 명칭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이 있게 됩니다.**

